

율법주의 탈출 곧 영혼의 자유가 성숙의 비결이다

성경말씀: 롬6:1-11

요즘 로마서 4장부터 한 주에 한 장씩 살펴보고 있다. 사람의 죄,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의 화평, 열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그런데 구원받은 뒤 성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의문이 생긴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람의 약점 중 하나

1.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무엇을 해도 문제없다. 바울의 대답: 아니다. 로마서 6장

2.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행위+믿음). 로마서 7장 사도 시대부터 후자는 큰 문제, 사도행전 15장(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자의 의도 파악 중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주석을 읽었지만 성경의 앞뒤 문맥 이해에는 위어스비가 최고, 설교를 위한 주석 시리즈, 기록자의 의도 파악하는 데 최고, 1930년생, 이번 5월에 소천 오늘도 그분 및 여러 사람의 설명을 중심으로 또 다른 극단에 대처하는 법을 살펴보고 싶다. < >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교회의 모토 중 하나: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 신약과 구약, 은혜와 율법(요1:16-17)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은혜를 혼합해서 믿는다.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교회 생활과 개인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내 문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롬3:20). 확실하다.

구원 이후는 성화, 올바른 구원이면 구원의 열매, 더는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한다.

그러면 성화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답이 네이면 얼마나 지켜야 하는가?

율법과 율법주의 구분

율법: 십계명(하라, 하지 말라, 613개, 365개 하지 말라, 248개 하라), 원래 법은 규칙으로 이해 우리가 만든 좋은 규칙(성경 3장 읽기, 5분 기도하기), 이것들 자체는 선하다.

율법주의: 법규와 규칙을 지침으로 기록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예 1: 구원받으려는 사람에게 하는 말: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어요!”

구원받으면 곧바로 율법주의가 나온다: 8주 성경공부, 주일성수, 십일조, QT, 치마, 양복...

예 2: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가? 성경 5장, 기도 30분, QT 20분, 일주일에 전도 2명...

지키면 OK, 못 지키면 벌을 받을 것 같음

지키면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고 지키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될 것 같음

지키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게 자신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없음

율법주의는 심각한 병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된다. 환자를 죽인다. 전염시킨다.

심지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규정들을 지키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율법주의 병 환자: 주로 일 중심의 사람, 남자들, 자기 의를 나타내려는 사람들

율법주의 병 증세: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없다. 오르락내리락

극도로 남을 비판한다(용서와 긍휼을 모름).

1. 율법에 대해 죽음(1-6절)

롬6:15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반대: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 것, 율법(규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롬7: law(법, 율법, 규칙) 23회, 바울은 결혼 이야기를 예로 든다.

남녀의 결혼: 육체적으로 하나가 됨(창2:24)

둘이 살아 있는 한 결혼이라는 법의 권세 아래 있다. 상대방이 죽어야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1.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4-5).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해서 그 아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뒤에는 우리의 옛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향해) 죽음(율법은 살아 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산다.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후5:17).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옛 남편인 율법과는 죽음으로 헤어졌으므로 더는 섬기면 안 된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 있으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신다(갈2:20).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롬8:4). 영원토록 ★★★ 우리는 율법에서 구출되었다(6).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

2. 율법이 죄나, 나쁜 것이냐?(7-13)

1. 율법은 죄를 보여 준다(7).
완전한 거울이다. 바울은 탐내는 것(10계명의 마지막 것, 내적인 것)을 예를 들고 있다.
2. 율법은 죄를 일으킨다(8-9).
이것은 마치 자석과 쇠와 같다. 돌이 붙어 다닌다. 율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롬4:15).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들어가고 싶어진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롬8:7). 그리스도인이 법을 세우고 그것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 실족하고 낙심한다. 법 자체는 선하다. 성경 5장 읽기, 전도 2명 등등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하고 나면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못하면 심한 죄책감에 빠진다. 그러면 회개하고 재현신한다. 또 쓰러진다. 다시 회개하고 재현신한다.

3. 율법은 죽인다(10-11). 원래 죽이는 사역을 한다.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습? 히12:18-21
어떻게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가? 죄가 틈을 타서 끼어 든다. 사람들마다 교회마다 담을 쌓는다. 해변에 가는 일: 남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여자들의 유혹,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담을 쌓는다. 해변에 가는 일은 나쁜 일이다. 그러면 그 뒤부터 해변에 가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 의도는 선하다. 그 자신에게는 선한 일이지만 그것이 법으로 작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근본주의 교회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사람을 죽인다. 미국 통계 바이블 벨트 이혼율, 청소년 임신율, 유타주 몰몬교 음란 동영상
침례(장로 교회), 킹제임스 성경(개역성경), 치마(바지)
사람이나 교회가 규칙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이는 일이 시작된다.
교회의 부흥이 없다.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사랑이 없다.

3. 율법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나의 무능함(14-24)

1. 율법은 선을 행하게 할 수 없다(15-21). 요점 내 안에 죄가 있다. 내가 문제다. 계속해서 ‘나’(20여 차례)
2. 율법은 자유롭게 할 수 없다(21-23).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내게는 이제 두 본성이 생겼다(21, 23). 두 개의 법, 결론: 14절

4. 성도의 승리 비결(24-25)

결국 큰 고통(24),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마르틴 루터).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마5:3). 영의 파산을 겪는 자,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다음이 심히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하리요?”가 아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이다.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25), 율법의 문제도 예수님이 처리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갈등에서 자유하게 되고 정죄함이 없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 성화이다. 심지어 바울도. 승리의 비결이다.

영원히 한 번에 끝나고 8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방법: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

성경 5장, 기도 30분, QT 20분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도 된다. 동창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혹은 규칙 지키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

예: 고용주와 고용인이 계약을 맺는다.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늘 주인의 눈치를 본다.

그런데 고용주 총각과 고용인 처녀가 결혼을 하면 더 이상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아니다.

여자가 더 이상 눈치를 안 본다. 밥을 한 번 못해도 OK, 밥을 태워도 OK

그러나 사랑하게 되므로 예전보다 더 잘한다. ★★★

태도의 변화, 하나님께 영광

결론

1. 율법에 대해 죽었다. 2.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3. 율법과 투쟁한다. 매번 진다. 4. 결국 영의 파산을 겪는다. “누가 나를 구출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성화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법칙은 행위 법칙이 아니라 은혜 법칙이다.